

연중 제 10 주 일

기도서 P. 364 A해

제 1 독서 (호 세 6, 3-6절)
제 2 독서 (로 마 4, 18-25절)
복 음 (마 태 9, 9-13절)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우리 집, 우리 교회

정 승 현 신부

우리 집안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달리 할 이야기가 없으니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5남매인데 아직까지 결혼은 큰형님만 하셨습니다. 그 큰형님에 이야기인데, 큰형님께 집에 갈 때마다 느끼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큰 형님께 집에 들고 나는 분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을 지닌 사람들,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 이라는 것입니다. 형님께 집도 그런 분들에게 거북한 감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으로 노력한듯이 정리가 안된(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형님은 그런 분들과 술잔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가끔은 형수의 짜증을 듣기도 하지만 별로 개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주부로서는 손님 대접하기가 힘들고 잔뜩이나 가난한 처지에 꾸러나가는 살림이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그런 형님을 좋아합니다. 형님께서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형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형님에게서 사랑을 느낍니다. 앞 뒤 재줄도 모르고 싹트누구나 도와주는 것이라든지, 유해식품으로 생각하고 팔아주지 않는 행사인의 물건을 사서 맛있게 먹는다는지, 교회에서 괜히 미움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음식과 술을 나누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못하는 일을 형님은 아주 자연스레 수월하게 해내누구나 하고 경탄합니다. 부모님의 생일이라든지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차린 전 별로 없으면서도 딱딱리 잔이라도 나누려고 어중이 떠중이 할 것 없이 모두 초대합니다. 그 초대에는 지위의 고하나 재산의 다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형수께 좀 골치아픈 일이지만 대개는 그런대로 별 용없이 잔치를 치르곤 합니다.

형님에게서 나는 예수의 처신을 가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힌트들을 발견합니다. 오늘 복음에서처럼 예수께서 제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도 전혀 거부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온갖 비난에 대해 그들을 옹호하고 나서는 것과 형님의 저러한 처신은 반대되는 것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형님을 너무 치켜올려서 나 자신까지도 그 바람에 좀 우울해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집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죄인들과 없는이들(못가진 자들)에게 항상 활짝 개방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신부님 나에게 가장 적절한 훈계 말씀이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자선이다.”하신 말씀의 뜻을 좀 배우시오.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 (중앙 천주교회 보좌신부)



성 명 서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 협의회는 1978년 6월 4일부터 6일까지 수원에서 제11차 정기총회 연수회를 마치고, 최근에 자행되는 그리스도교적 노동운동과 농촌운동에 대해 옹공시하는 부당한 억압을 증대시키고, 노동자 농민들의 고통에 동참하여 의무적 어려움에 함께 대처할 것을 결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동일방직 사건에 즈음해서 발표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1978년 4월 8일자 성명서를 전폭 지지하며, 정부당국과 관계 기업체가 이를 수락하여 조국의 밝고 아름다운 미래 건설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한국 가톨릭 농민회가 밝혀낸 합평 고구마 사건이 농민들의 권익옹호와 서정쇄신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하며, 이 사건의 보복조치로 보이는 춘천과 광주에서의 농민회 간부의 입진 구속이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들의 석방을 촉구한다.

1. 우리는 그리스도교적 농촌운동과 노동운동을 옹공시하는 처사가 국민총화를 저해하며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이적행위로 단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관계당국은 즉각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여 의법처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평신도사도직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평신도에 대한 계속되는 직·간접의 압력과 탄압 사제를 종교 탄압으로 간주하고, 이의 즉각 중지를 촉구한다.

1. 우리는 언론자유가 민주주의의 토대일 뿐 아니라 기본인권에 속하는 기능임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민이 생각할 자유에 따르는 알고 알릴 권리를 당국이 보장해 줄것과, 언론정의 회복을 위한 언론기관의 자각을 촉구한다.

1978년 6월 6일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숲 정 이 산책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오늘의 한국 언론인 여러분에게

국내 신문·방송등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특히 이 분야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한국의 언론은 지난 일제 치하와 해방후의 제 1, 제 2 제 3 공화국에 걸쳐서 항일, 반독재 투쟁의 일선에서 민족과 민중을 대변해 온 영광스러운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 이후로 한국의 언론은 그 빛나는 전통을 스스로 훼손하기 시작하여 70년대 말에 이른 오늘에 있어서는 언론 부재 내지 반국민적 역기능 언론의 시대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계 여러분은 자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민주 정치의 계속되는 시련기를 겪어 오면서 한국의 언론계가 뜻 밖의 여러가지 수난을 겪어 왔다는 사실도 우리 국민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각 직능 분야는 그 나름의 직능과 명분을 최소한으로라도 지켜 나가는 것이 엄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언론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문제, 국가 체제나 헌법에 관한 문제는 여러가지 언론 규제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사실보도마저 조심한다 치더라도, 그 밖의 민생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부조리와 부정 사실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보도하기를 기피하는지 국민적 양식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78년 2월 21일 동일방직 여공들에 대한 인분 세례사건, 이로 인한 3월 10일 노동절 기념식장에서 있었던 가난한 여공들의 항의사건, 120여명의 10여일간에 걸친 단식 농성, 그러나 끝내 120여명의 동일방직 여공들이 억울하게 집단 해고를 당한 사건이 왜 보도되지 못합니까?

근래에 평화상이 청계 피복지부, 방립방직·동일방직이 밖의 여러 근로작업장에서 비인도적 수준의 저임금 해소와 노조 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항의 사태가 일어났고, 이러한 때를 계기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가난한이들, 힘없는 이들을 위해서 참된 봉사할 하지 못한점"을 반성하면서, 정부도 국민과 하나가 되어 "조국의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건설하는 데 배진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주교단은 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국민총화와 국가안보를 위한 충정으로서, 그 외의 아무런 사심이 내포되지 않은 성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명도 신문에 단 1행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에 감사원 발표에 의한 농협 고구마 수매자금 80억원 유출 사건은 왜 이제와서야 피상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까. 이미 76년 11월 전남 함평군에서부터 커다란 사진이 되었고 가톨릭 농민회가 지난 2년동안 농협측의 부정을 고발했고, 금년 4월 24일부터는 참다 못해 일어난 농민 700여명과 가톨릭농민회 전국 지도신부들이 전남 광주에서 8일간 기도회를 개최하고 배상요구 시위를 하자, 마지못해 309만원의 배상을 해준 사실이 왜 신문에 보도되지 못합니까. 이 사건으로 농협직원 659명이 징계 선상에 올라 있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 중벌이 고작 해직·해임이고 그나마 아직 징계가 결정되지도 않았습니다. 80억원의 부정 손실에서 309만원만 농민에게 되돌려 주면 나머지 농민 피해는 어떻게 보상될 것입니까 이처럼 농민, 직공 등 가난하고 무력한 서민 대중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현실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나라의 언론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서민 대중의 권익을 위해서는 단 1단의 기사에도 인색하면서 날질승의 보급자리 등 이른바 자연보호를 위해서는 원색으로 전면을 채우는 보도 태도는 또 무엇입니까. 새벽의 서식 조건에 비해 100분의 1의 비중도 못되고 있는 민생문제 보도 태도는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언론 규제법 조항도 없습니다. 헌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긴급조치 9호의 어느 조항도 위 사건들을 보도하지 못하게 규정한 바 없습니다. 긴급조치 9호에서 "유언비어의 날조" "사실 왜곡" 금지 조항은 위 사건들의 "엄연한 사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는 태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실 왜곡" 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왜곡의 언론이야말로 국민속에 불신풍조와 유언비어와 분열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토대일 뿐 아니라 기본인권에 속하는 기능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자연법적 인간 본성에 근거하여 "생각할 자유에 따르는 알고 알릴 권리"를 공식적인 언론관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이 당연한 사리들이 인식되어 이 나라에서 "언론정의"가 회복되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언론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아직도 이 나라를 민주 복지사회로 건설해 나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을 우리 모두가 함께 상기하여 이 나라의 영예로 왔던 언론 전통을 소생시킬 수 있기를 거듭 갈망하는 바입니다.

1978년 5월 7일 홍보주일에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 위원회

□설계·김리·허가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급자리 건축에 희소식!!!



신원 건축연구소

1 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연>)

☆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3-7780, 3-<야간>1449

◆ 3년동안 뒷손을 보아드립니다 ◆

가정용목욕탕. 온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라판매 본사직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본사 직영 호남출장소)

전주 ③ 4341 군산 ② 3032 이리 8629
한 등 압 (모이세)



6월은 예수성심 성월

김 영 구 신부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중만함으로조차 은혜위에 은혜를 받았도다." (요한1장16) 실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부께 나아가는 순례의 도상에 가로 놓여진 모든 장애를 집어치우고 모든 은혜를, 그것도 한없이 준비하셨습니다. 또 신비체의 머리로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상태의 정신과 신비의 표현을 그 지체에 전하는 권능도 가지십니다.

그리스도의 여러가지 신비를 관상하여 온 우리눈에 특히 두드러지게 보인 덕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강생을 실현시켰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는 저 약한 육신을 취하고 태어나시게 하였읍니다. 그리스도께 세상에서 숨겨진 사생활을 고무하고 공생활에 대한 열성을 일으키게 한것도 사랑이었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신 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무궁한 사랑"(요한 13장 1절)의 재촉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화를 위해서"(로마서 4장 25)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선구자로서 천국에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요한 14장2, 히브리서 6장 20참조)였읍니다. 위로자이신 성신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고통하게 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하여"(요한 14장 18)였읍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신비는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활발하고 영속적 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충실히 하느님께 봉사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 바오로를 보시오.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분발하고 자기를 죽인자는 없을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행한 사업과 받은 고초를 열거합니다. "나는 허구 많은 수고를 겪고 감옥에서도 매를 맞고 죽을 받을 새였으며, 주리고 목마름을 당하고, 여러번 업제하였으며, 추위와 험빰음을 당하였는가? 날마다 물러오는 안으로 당하는 걱정과 모든 교회를 위한 주선이 있도다. 두 만일 약하여지면 나도 또한 약하여 지노라..." (고린토 후서 11장 23-28장),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자를 인하여 승리하리라"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누구의 은덕으로 그는 모든 고난을 "생명에 대하여 절망하도록"(고린토 후서 1장 8)까지, 삶의 염오를 참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누구의 은혜로 이 모든 시련속에 있어서 확고한 신념으로(로마서 6장 35) 그리스도께 애착하게 되었던 것까요? 그는 스스로 대답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자를 인하여"(로마서 8장 37절)라고, 바오로를 뒷받침해 주고, 강하게 하고 자극한 것은 오직 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으며, 이 사랑에 대한 영혼의 근저로부터의 확신이었습니다. (갈라타서 2장 20) 실제로 이 열렬한 신념에서 흘러나온 정령은,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리스도 신자들을 박해한(사도행전 26장 9) 옛날의 바오로를 재촉하여 "이미 자기를 위해서 생활하지 않고 오직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생명을 버린 자를 위해서만" 생활하게 하였읍니다. "그리스도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우리를 재촉하시나니라"(고린토 후서 5장 14)고 그는 절규 합니다. "나는 가장 좋거니 나를 희생하며 그리스도의 전리품(戰利品)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리라"(동 12장 15)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 신념은 위대한 사도 성 바오로의 전 사업을 말해주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 자각과 이 신념보다 더 우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게 하는 원동력은 없습니다.

요섭이 (254) 김병오



建設部
시멘트 제품 제조 免許業体

신 흥 공 업 사

파티마 성당 입구
☎ 6016, 2519
李敎成, 김화자(글라라)

◇경윤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타·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가정용 목욕탕, 온수, 난방 시설 및 수리

한국流 온수 온돌 공사

(진안, 장계, 대리점)

진안전화 577번
장계전화 주간 9번, 야간 40번
※교우분들께는 1할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 원 모 집

용모 단정하고 요리솜씨 있으면
분으로 30~50세 정도의 가톨릭 신자에 한함

①구비서류...이력서·본당신부 추천(각 1통)
②접수마감...6월15일까지, 본인 직접 면담 바람
③근 무 처...전주 가톨릭 여학생관(전화 ☎3955)

★ 양심을 찾자 ★
현 대 칼 라 특 약 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교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교비)

□각종카텐·응접싯트·의자·철재
책상·목재비품·기타일체(판매·및 수선)

대 건 공 업 사

전주시 서노송동 605의 43
(가톨릭센터 앞) 전화 ☎7166
장 기 수(다두)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김재덕 주교님, 8일 오후 2시 CPA항공기편으로 출국
김주교님은 교황청을 비롯하여 전주교구와 관련있는 해외 여러기관들과, 외국에 계신 교구 신부님들을 찾아보기 위하여 비서인 배영근 신부님과 함께 출국하셨습니다.
여행기간 동안(약 2개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의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 호남지구 성직자 친선 체육대회 (16일<금> 오전 10시, 해성학교 교정)
광주 대교구 신부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양 교구의 우의를 더욱 두터이 하도록 기도하고, 많이 참가합니다.
- 교구 평협 임시총회겸 지도자 연수회 (17일<토> 오후 4시-18일<일> 오후 1시, 가톨릭센터)...공문참조
① 각 분당과 교구단위 단체 (교리교사 연합회, 농민회, 대학생연합회, 레지오 마리에, 빈첸시오 아빠 율로회, 약사회, 노동청년회, 프란치스코 재수 형제회)에서는 2명씩 반드시 참가할 것.
② 교구 단위 단체는 사업보고서 (77. 6. 1-78. 5. 31)를 준비할 것.
- 중·고등 학생 연합회 회장단 회의 (오늘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군산시 3개분당-둔물동, 월명동, 팔마-연합 청년회 임시총회 (오늘 오후 2시, 둔물동성당)
□ 조성호(야고보) 전주교구 평협회장, 한국 평협 부회장에 피선 (11차 총회에서)
■ 노승동 분당 주임 공아영 신부 모친 로사리아여사, 82세로 선종...기도합니다.

(중앙)

전화 ③3651
③3874

주임 신부 서영복
보좌 신부 이
보좌 신부 이
사도 회장 회장

- 구리아 율레회: 11일 오후 2시 (장당)
- 신자 재교육 (저녁 8시-9시30분, 강당)
① 12일(월): 중노송동 ② 13일(화): 진북동
③ 14일(수): 금암동 ④ 15일(목): 인후동
※ 지참물: 성경, 성가집
- 주교좌 분당 신자의 3대금지.
① 성경을 잘 읽는다. ② 봉헌금을 잘 바친다.
③ 주일을 잘 지킨다.
- 영세일: 7월 1일(토) 저녁 7시30분.
- 사진 찾아 가세요 (성모의 밤)

□ 지난주 봉헌금: 165,095원

(노송동)

전화 ②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영희
사도 회장 김성록

- 성우회·성모회 율레회: 오늘 공식 미사후
- 노송 신우회 정기총회: 오늘 저녁 미사후
- 레지오 마리에 P. R 단장 모임: 다음주 공식 미사후
- 학생회 체육대회: 금일 오전 해성학교 운동장
중·고등학생 전원 참석 바람.
(부모님께서도 뜨거운 성원과 참석 바랍니다.)
- 대학생 모임: 매주 <월> 저녁 6시30분
- 감사합니다: 공신부님의 모친 위환 조의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66,50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사도 회장 유제상

- 주일 미사시간 엄수·미사시간에 빈손은 아니겠죠?
- 회사: 제병-조준석, 제대꽃-최덕례 감사합니다.
- 4지구 학생 체육대회: 오늘 오전 해성고에서
부모님께서도 응원과 격려를, 많은 참석 바람
- 다음주 신자들의 기도: 박춘자, 유정순, 김용식
- 봉헌 예절은 맨 앞부터 한분도 빠짐없이...
- 분당 신부님 영명축일: 6월 29일
(많은 기도와 협조를...)

□ 지난주 봉헌금: 72,84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 성우회 율레회: 오늘 공식 미사후 (이경호 렉)
- 오늘 강론: 조성호 회장님 (10분)
분당 운영 상황보고: 재경부장 박상기(5분)
성서 보급운동: 선교부장 장동주(5분)
- 4지구 학생 체육대회: 오늘 해성고에서 (응원과 많은 협조 바람)
- 파티마 성모상 가정방문
11일(일)-김완식, 12일(월)-김바울라, 13일(화)-김용식, 14일(수)-최재호, 15일(목)-송글라라, 16일(금)-이갑철, 17일(토)-설순님, 18일(일)-문기식, 19일(월)-공누리사, 20(화)-이명옥, 21일(수)-엄기택

□ 지난주 봉헌금: 147,085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 선교주일: L. M 간부회
- 반상회: 6월 13일-5반, 14일-6반, 15일-7반, 16일-8반
- 체육대회: 6월 11일 중·고등학생 (해성학교 교정)
6월 16일 호남 성직자, 친선대회 (해성학교 교정)
- 축 결혼: 6월 11일 11시 30분
신랑: 황욱기(시몬) 신부: 이현자(엘리사벳)
- 사제관 및 상가건립: 형제 자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요망

(순정이)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 예비자 교리안내: 화·수·목-오전 10시
- 첫 영성체 교리: 화·수·목-금-오후 5시
- 어머니 성가대: <목> 오후 2시30분
- 교리교사 모집: 희망자 수녀님께 접수 바람
- 봉헌금 미납된것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도회 각 분과 위원 보강
선교 분과위원: 남상용, 강은홍, 이경희, 유재만, 이순님, 정귀비, 이명재
전례 분과위원: 정주복, 김경주
봉사 분과위원: 이준희, 안재구, 김동선, 김경태
재경 분과위원: 홍성조, 박명열, 김영제
교문: 홍종식

□ 지난주 봉헌금: 101,985원

(파티마)

전화 ②7249

주임 신부 문정현
사도 회장 채수현

- 가정방문: 13일-에그린, 효자 1단지
14일: 효자동 2가 15일: 기타동
- 어머니 미사: 16일(금) 오전 10시
- 성가대 모임: 17일(토) 오후 5시
- 병자 방문: 매주 목요일
방문은 환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 지난주 가정방문에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32,585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이유
보좌 신부 유종석
사도 회장 황순환

- 자모회: 10시 미사후
- 장우회: 저녁 미사후
- 유아세례: 2시 미사후
- 성가정회: <월> 오후 2시
- 주일학교 교장: 권비안씨 수녀
- 예비자 학생교리: 장 메레사 수녀
- 4지구 학생 체육대회: 오늘 9시 해성 운동장
- 젊은이 성서 연구모임: 3면 참조
- 예비자 교리안내: 젊은이 (수, 저녁 8시 미사후)
직장인 (금, 저녁 8시 미사후)
학생 (주일, 9시 미사후) 일반 (주일 10시 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142,730원